

# 양봉협회 벌꿀 규격기준 내년 초에 다시 논의

식약청 사양벌꿀 기준 없어 기준 설정 어려워  
자율표시제 운영기간동안 잠정 유보키로  
8월 26일 제6차 이사회 개최

벌꿀 품질과 관련하여 ‘벌꿀 자율표시제’가 운영되는 올해 말까지는 협회 규격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계획이다.

양꿀 표시제를 보면 벌꿀 성분표시가 충분히 되고 있다”며 “지금 굳이 규격기준을 손볼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8월 26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농진청 간담회 이후 제6차 임원회의를 열고 협회 규격기준과 관련해 내년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봉협회는 벌꿀 규격기준을 벌꿀자율표시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초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이후 벌꿀 품질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배경수 양봉협회장은 “식약청에서 사양꿀에 대한 기준을 고시 한다고 하면 협회 차원에서도 벌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격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사양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협회 기준만 높일 경우 업체 반발을 비롯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양봉자조금관리위원을 법 규정에 맞게 현행 1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인준 신청이 접수된 대의원 인준심사를 실시했다. **양봉**

또한 “현재 벌꿀자율표시제가 6개월간 시범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면 내년 초에 협회 규격기준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오만균 부회장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

